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19

JCCT 2022-3-3

## 스텝 차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에 나타난 인종 삼각구도

### Racial Triangulation in Steph Cha's *Your House Will Pay*

임진희\*

Yim Jin-Hee\*

**요약** 본 논문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미국사회에서, 한인, 백인, 흑인의 관계로 형성된 인종 삼각구도의 양상과 의미를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 폭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계 미국 이민 2세대 작가 스텝 차(Steph Cha)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Your House Will Pay*, 2019)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인종 삼각구도와 연관된 인종서열 관념, 인종적 상투형, 인종간 분리, 역사적 주변화, 문화적 편견의 쟁점을 살펴본다. 대도시 공간에서의 인종폭력에 얽힌 한인가족과 흑인가족의 좌절과 분노, 갈등과 증오,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통해 백인주도 사회의 다인종 간 상호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LA 인종 폭동의 도화선이 된 한인 이민 상점주와 흑인 토착시민 소비자 배후에 자리잡은 이민자와 토착시민의 갈등 구조, 이민 소자본 자영업 공간의 특성, 이민경제적 양상을 중심으로, 대도시 폭력의 쟁점을 탐색한다. 흑백관계, 한백관계, 한흑관계로 이어지는 인종 삼각구도를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자원이자 역사적 갈등의 원천이 되는 인종 쟁점의 사회경제적 매트릭스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강화하고, 초인종적, 초민족적, 초문화적 공감과 생명 공동체로서의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의 확장을 모색한다.

**주요어** : 한국계 미국문학, 스텝 차,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 인종삼각구도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a multi-racial,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triangulation of Black, White, and Korean American race relations connected to a large-scale disturbance in the 1992 Los Angeles riots.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Steph Cha's *Your House Will Pay* (2019) focuses on a social portrait of the racially marginalized beings as Korean immigrant merchants and African American native consumers. This family saga explores issues resulting from racial hierarchy, racialized stereotypes, and historical marginalization in the internalized sociometry of race and class inequality. This work grapples with issues involved in a sociocultural web of racial triangulation under the white dominant structure, and ensuing intergroup conflicts of social minorities in the economic geography of urban space. It opens up civil discussions for transracial, transethnic, and transcultural interactions and coexistence. It ultimately leads to extending young people's minds for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ocioeconomic landscape of racial matrix, and enhancing the cultural literacy for a better awareness of social empathy and the communal respect of life.

**Key words** :Korean American Literature,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1992 LA Riots, racial triangulation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교수  
접수일: 2022년 12월 20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7일

Received: December 20, 2022 / Revised: February 24, 2023

Accepted: March 7, 2023

\*Corresponding Author: yimjin@nsu.ac.kr

Dept. of English, Namseoul Univ, Korea

## I. 서론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공존이 국가적 자원이자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는 숙명을 지닌 미국사에서, 최근의 미국사회는 ‘내란’을 겪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미국사에 누적되어온 고질적 인종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020년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경찰의 과잉 진압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처럼, 백인주도의 미국사회 내 인권 불평등의 쟁점은 현재진행형의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백색’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인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삼십 년 동안 미국 인종사나 문학사에서 끊임없이 소환되어온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을 다인종 갈등의 전형적 사건으로 주목한다. LA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인종 충돌은 특히 미국사의 인종적 집합점으로서 흑인과 백인, 한인의 관계가 “인종 삼각구도”(racial triangulation)[1]로 얽힌 사건이다. LA 사태의 도화선에는 흑인 로드니 킹(Rodney King)을 폭행한 백인경찰에 대한 경징계와, 동시에 일년 전 15세 흑인소녀 라타샤 할린스(Latasha Harlins)를 오렌지주스 한 병의 절도 오인으로 총격 사망에 이르게 한 두순자(Soon Ja Du) 한인 상점 주인에 대한 백인판사의 관대한 판결 등 경찰과 사법부로 대변되는 백인 우월주의적 공권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백인과 한인에 대한 분노가 증첩된 가운데, 흑백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한흑 관계로 표출한 대표적 사건으로 LA 사태를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백-흑의 인종 역학이 표면화된 LA 인종폭동을 분석하는 소재로서, 한국계 미국 이민 2세대 작가인 스텝 차(Steph Cha)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Your House Will Pay*, 2019)에 주목한다[2]. 이 작품은 LA 인종폭동의 실화적 사건을 주제로 갈등과 원한, 죄의식으로 얽힌 한인가족과 흑인가족의 이야기를 1991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부로 구성된 가족 연대기로서, 인종과 사회정의에 관한 쟁점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 작품은 한인과 흑인의 상호 시선을 통해 사회적 좌절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미국 대도시 시민폭동의 근간에 자리 잡은 인종주의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문학사에서 LA 인종폭동을 소재로 한 시각이 주로 한인의 입장에서 흑인사회를 그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 작품은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흑인의 입장에서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각시킨다. 스텝 차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LA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자신이 같은 커뮤니티의 일부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죄의식(shame and guilt)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한인과 흑인 사이의 “연대감”(kinship)을 느꼈으며, 그러한 사건이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했고, 흑인가족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면서,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은 두 커뮤니티를 연결시키고 싶었다”고 밝힌다[3].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흑인과 한인의 각 장을 교차 배치하여 씨줄과 날줄로 구성된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1991년 3월 8일 금요일” 흑인가족을 대변하는 손(Shawn) 시각에 이어서, 바로 다음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한인가족을 대변하는 이민 2세대 그레이스(Grace)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흑 관계의 역사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한흑 상호 시선의 설정은 다인종 관계의 밀도와 시의성을 더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흑-백’ 인종 삼각구도의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인종관계의 역학을 고찰한다. 구체적 분석의 단계로서, 첫째 미국사의 고질적인 ‘인종주의’의 근간으로서 흑인과 백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한인 이민사회를 지배하는 ‘모범적 소수자’의 신화나 ‘명예 백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인과 백인의 관계를 분석하며, 셋째 LA 사태로 증폭된 한인과 흑인의 관계를 통해 집단적 인종 상투형을 넘어서는 사회적 공존의 역량을 모색한다. 인종 삼각관계의 집합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권 평등성에 관한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확장하고,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커뮤니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흑백관계

### 1. 백색 담론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에는 인종 삼각구도의 근간이 되는 첫 번째 축으로서 흑백관계가 나타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에 근거한 인종 이데올로기는 미국사회를 움직이는 거대 담론을 형성한다. 백인주도의 인종주의 담론이 흑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부정적 상투형을 확산하는 가운데, 백인 공권력의 강압적 자세는 흑인 노예제도의 유산으로 흑백의 메커니즘으로 반복되어왔다. 역사상 누적되어온 인종주의적 사회 틀 속에서, 인종차별, 인종비하, 인종적 불신, 인종 증오로 표출되는 흑백 인종차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사회의 중심에서 경찰과 사법부는 ‘백색 사회’의 공권력을 구현하며, 뿌리 깊은 흑백인종차별 속에서, 흑인은 범죄자로 태어나기보다는 ‘범죄자로 만들어진다’는 미국의 전형적인 흑백 인종지도가 나타나 있다. 실제로 LA 인종폭동 당시 상황은 “미국 사법제도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 “명백한 반흑인정서” 속에서 흑인 불심검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비율이 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서 제도적 인종차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4]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흑인 남성이 다른 인종과 성별 집단보다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5]. 흑인 남성들은 높은 수감률을 보이며, “심지어 흑인 청년들이 대학에 가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구직 혹은 취업을 할 확률보다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정도로, “수감률에서의 인종 불균형은 심각하다”고 지적된다[6].

이 작품은 백인과의 관계에서 인종의 위치가 결정되어온 미국 내 인종주의를 재현하고 있다. LA 인종폭동 직전 199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시점을 교차적으로 제시하는 구도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반복된다는 점이 부각된다. “1991년 3월 8일 금요일”이라는 제목의 첫 장부터 흑인 손(Shawn)의 시각으로 LA 인종폭동의 발단이 된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이 다루어진다. 손은 “로드니 킹,...경찰이 두드려 팬 흑인.” “저자들에게 공평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무서우냐. 흑인이 열 명만 모이면 갱단인 줄 아느냐고”라며(20-21), 백인 우월주의적인 인종주의에 분노한다[7]. 손은 자신이 ‘흑인이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법자, 우범자로 취급되고, ‘벽에 돌려 세워지기 일췌’인 상황을 묘사하며, 특히 취약한 청소년기에 흑인이 ‘범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언한다. 이 작품은 백인의 지배적 인종권력 구도 속에서 각 인종의 생명 가치가 다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백인주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독해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 2. 반흑인정서

인종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종 위계질서적 구조가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역학 관계의 산물이다. 이 작품에서는 LA 인종폭동의 발단이 된 1991년 로드니 킹 사건의 비극이 2019년 알폰소 쿠리엘(Alfonso Curiel) 사건으로 재현되는 상황을 통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와 같은 인권운동이 왜 현재진행형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인 알폰소 쿠리엘이 아마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뒷마당으로 집에 들어가려 했을 텐데,” “한 경찰관이 그 애를 집 뒷마당에서 사살”(31)한 사건이다. 추도사에는 흑인의 인권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설교자는 “미국에서는...무기 하나 없는 흑인 소년인데도, 누군가가 법의 비호 아래 살해할 수 있습니다”(31-32)라고 증언한다. 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계획이었던 이 소년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지상에서 꿈을 이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우리가 여기서 알폰소를 위해 구할 것은, 오직 정의뿐입니다.”(32-33) ‘알폰소 쿠리엘에게 정의를’이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진다. 그가 잊히지 않게 기억해달라는 눈물 어린 외침과, “아 이에게 무기가 없었고 냉혈하게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나왔다.”(86-87) 체계화된 인종차별로 인해,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강패들만 죽임을 당한다고”(102) 믿는다는 지적을 통해 인종주의로 인한 사회적 폭력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 흑인 슬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흑인 청년들은 자신들이 청소년기에 감옥에 가지 않고 성년으로 무사히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청소년기부터 일찍 생사의 갈림길을 절감하게 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한 흑인 청년은 “자신이 80이 될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하는게 꿈”이라고 하면서, 흑인이 자연수명으로 사망하는 것조차 어려운 빈곤층 도시폭력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8].

반흑인정서가 초래한 구조적 불평등은 경제계층의 쟁점과 직결된다. 인종화된 빈곤이 장소 계층사회를 형성하는 가운데, 낮은 임금, 빈곤과 높은 실업률, 공교육의 붕괴 등 교육과 취업기회의 격차가 악순환되고 있

다. 이러한 흑인구역의 지형도에서 발생한 LA 인종폭동은 백색 담론의 반흑인 정서에 대한 인종적 분노를 소수인종 간에 투사한 인종 삼각구도의 결과와 연계된다. 특히 빈곤한 흑인 지역에서 한인 이민 상점이 “백인의 방패”[9]로서 흑백 인종갈등의 대리전이 되고, 흑백구도가 한백관계를 매개로 하여 한흑구도로 연결되는 양상이 고찰되고 있다.

### III. 한백 관계

#### 1. 이민자 멘탈리티

미국사에 있어서 백인 주도의 인종 삼각구도는 흑인과의 관계에서는 인종갈등으로 작용해 온 반면, 아시아인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상대적 우호성을 유지해왔다. 흑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백인문화의 전형적 수사법으로서, 흑인의 대조집단으로서의 온건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미지는 ‘모범적 소수자 신화’(model minority myth)를 형성해왔다. 사회 속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대체로 흑인과의 거리두기 속에서, ‘명예백인’(honorary white)을 지향하는 인종구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실용적 이익에 몰두하는 가운데 백인의 아메리칸 드림의 모델을 지향하고, 백인의 문화적 기준을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의 심리적 기제는 백인사회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흑인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상호인식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 타인종과의 직접적 경험이나 사회적 소통이 부족한 이민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LA 인종폭동의 도화선이 된 실제 인물인 두순자 한인상점 주인을 1세대 이민자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 이민자의 초상에는 각 인종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백인주도사회의 인습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흑인, 인종, 인종 차별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이 집은 “긴장했다”(87)고 묘사된다. 딸 미리엄(Miriam)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부모를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흑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서툰 영어도 얼굴에 드러난 불쾌감을 변명할 수 없었다”(87-88)고 표현된다.

‘인종주의’의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민 1세대 커뮤

니티 특유의 혈연과 가족 중심적 단위 인식, 모국으로부터 형성된 단일민족적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 이민자로서 타인종과 단절된 채 미국 내 한국의 ‘인종 섬’(ethnic enclave)을 형성하고 언어장벽까지 겹친 가운데 다인종 공존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종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딸 그레이스(Grace)의 시각으로 표현된 부모세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잡종 언어로,”(89) 언어장벽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역사적 조망, 지역사회인으로서 공존, 지역공동체 인식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백인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 부정적인 한흑 관계로 연결된다. 한인들은 한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백색동화주의자 마이너리티’로서 기회와 혜택을 보며, 백인주도 사회의 전략적 인종위계적 패러다임에서 형성된 흑백인종차별적 시각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인들은 흑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내면화하여, 흑인들을 절도, 폭력배, 우범자로 상투화하고, 흑인성을 무능함, “위험과 범죄”[10]로 보는 백인사회의 시선을 답습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LA 인종폭동은 백인과 한인에 대한 분노가 중첩된 인종간 불신과 분노의 상징이 되고 있다.

#### 2. 이민자 대 토착시민

인종 삼각구도의 형성에는 특히 다인종 미국사 특유의 이민자와 토착 시민의 갈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흑인사회는 자신들을 미국사 발전에 동참하고 기여한 토착 시민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모범적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이민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주류 백인사회에 분노한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인종간의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특히 한인 이민사회의 약 1/3이 이민 1세대인 현실에서, 한인들은 대체로 외부세계에 대한 폐쇄성, 다인종 사회에서의 공동체 인식의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정체를 알 수 없고 ‘낯선(alien) 이방인’들로 인식된다.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이민자적 정체성과 인종관계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그레이스는 이민 1세대들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언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도록 큰 희생을 치렀다”(77)면서, 부모 세대의

대표적 특성을 이민자적 정체성으로 규정짓는다. 이러한 이민자 멘탈리티의 산물로서의 배타적인 가족중심주의적 사고는 다인종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LA 사태를 촉발시킨 충격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서만은, “자기학대”에 가까운 헌신을 했다면서, 언니 미리엄(Miriam)의 생일상을 보며, “그 모든 노동과, 수치스러운 정도의 애정. 정말이지, 너무 과했다. 마치 죄책감과 스스로를 벌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 같았다”라고 묘사한다(83-84). 이러한 ‘어머니의 초상’으로 재현된 이러한 이민자적 정서는 불안감과 절박감으로 인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레이스는 “이민 1세대의 근로 윤리”(76)가 이민으로 인해 상실된 뿌리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생성된 ‘비정상적인 근로윤리’로 파악한다. “이민자의 기백”으로 “모든 시간을 다 투입해 돈을 벌었다.” “날마다 한 푼 두 푼 모아 그들은 타지에 새 삶의 터전”을 지었다는 표현처럼(76-77), 실제로 ‘제3의 이민물결’을 구성하는 1965년 이후 집중된 한인 경제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몰입이 주목된다.

1991년 열세 살 손은 누나 에이바(Ava)가 오렌지주스 한 병 때문에 한인 상점주에게 머리에 충격을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손이 경험한 한인 상점주는 ‘돈만 아는 추악한 이민자’로, 흑인 가족에 대한 존중은 없고, 자신의 가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적인 ‘국’(gook)이다.

실제로 1990년 뉴욕시에서의 한인 식료품점에 대한 시위와 불매운동인 ‘레드 애플 보이콧’(Red Apple boycott)은 인종화된 빈곤 속에서 백인과 한인에 대한 분노가 중첩된 흑인사회를 보여준다. 또한 LA 인종폭동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한흑갈등을 자극한 아이스 큐브(Ice Cube)의 랩 <검은 한국>(Black Korea)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에 표출된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는 흑인 지역에서의 낯설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백색동화주의자’인 이민자 이방인에 대한 깊은 반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한인 이민 소자본 대 흑인 토착시민 소비자 구도와 연결되면서, 경제계층과 인종주의가 얽히는 양상으로 증폭되고 있다.

### 3. 이민 소자본 자영업과 미들맨

이민 소자본 1세대 자영업자들은 주로 백인 중심의 거대 자본의 물건 공급자와 지역의 말단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위치에 자리잡으면서[11], 인종 삼각구도의 경제적 양상이 개입된다. 이러한 ‘경제적 미들맨’의 개념은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척도로서 ‘중산층’ 경제계층 진입이라는 백색지향적 정서로 해석되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미들맨 정체성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 인종 지형도와 경제 지형도가 연계되면서, ‘인종적 미들맨’ 의식과 자본주의 계층 상향의식이 연결된 ‘경제적 미들맨’ 의식이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 삼각구도는 한백관계에는 긍정적인 반면, 한흑관계에는 부정적 인종주의로 작용하면서, LA 인종 폭동은 흑백관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백색 경제력을 지향하는 동화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를 위해 주로 선택한 소매업이 이루어지는 대다수 한인상권 밀집지역이 불안한 경제상황과 빈곤을 겪는 흑인지역인 상황이다. 인종에 따른 지역사회적 구분, 경제계층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지역에서, 한인들은 이민 소자본으로 백인의 미들맨 역할을 자처하며 흑인 지역사회에 침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한흑 간에 상호 무지한 상태에서, 한인 이민자 상점의 물질적 이혜관계가 인종관계로 환원되면서 인종간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인 자영업은 대체로 가족노동 집약적인 상업 형태로 일자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쇄적이며, 다인종 관계로의 인식의 확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흑인 커뮤니티가 바라보는 한인 소매업자들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없고, 흑인을 오로지 소비자로서만 인식하고 비싼 가격을 매기는 이민자들이다. 또한 흑인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강박관념으로 과잉 대응하며, 흑인의 좁도독질을 의심하고, 돈만 벌면 지역사회를 떠나려고 하는 ‘백색지향적 이방인’들로 인식되고 있다. 다인종 지역사회인으로 공존하기에는 문화적 문식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인종 역학관계를 주도하는 백색 사회가 공권력이나 미디어를 통해 할당하는 인종적 위치와 인습적 시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한백관계의 결과가, 결국 인종적 소수자들 간의 한흑 갈등으로 증폭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IV. 한흑관계

## 1. 한흑 집단적 상투화의 극복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에서 한흑 가정은 모두 미국사에 누적된 인종갈등의 대가를 치른다. 흑인 가정은 자신의 가족이 오랜지투스 한 병의 절도 오인으로 충격을 당해 죽었다는 트라우마, 생명 상실에 대한 분노와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의식으로 평생 시달린다. 에이바를 애도하며 느끼는 인종적 적개심에 대해 “손은 한 번도 그 분노를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왜? 분노는 그의 것이었다. 그가 잃은 모든 것의 증거였다.”(384) 라고 표현한다.

한인가정 또한 비극적 인종관계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본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상점주 한정자도 백인경찰이 흑인을 구타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되면, 흑인소녀를 총으로 쏜 자신의 행위를 연상하며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87)로 굳어 있다. 로드니 킹 사건 이후 28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흑백인종차별 사건으로서 흑인 소년 쿠리얼이 충격을 당하는 영상이 이어질 때도, 불안해하는 긴장된 얼굴에 깊은 상흔이 각인되어 있다. 결국 손의 조카인 데릴(Darryl)이 세대를 이어 집안에 내려오는 인종적 원한에 대한 보복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면서”(259) 숨어 지내는 한정자를 찾아내어 충격을 가해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인종폭동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한인가족과 흑인가족의 시선이 상호 교차적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인종폭력의 결과가 한흑 간에 예외 없이 몰려오는 악순환을 통해 미국 내 다인종관계의 비극성이 재현되고 있다. 인종적 몰이해와 분노로 점철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의 손에 대한 다가가감은 작가가 애초에 제시한 흑인 가족을 향한 한인가족의 사과와 호소의 의식, 흑인 소녀의 비극을 막고 싶은 한인사회의 안타까움과 치유의 시도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한흑 가족이 LA 사태의 값비싼 희생과 상흔을 대가로 하여, 인종 역학관계에 대한 사회적 독해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종 삼각구도의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인종적 상투형의 비극적 충돌로서, 흑인을 “검은 피부를 가진 위협”(273)으로 보고 과잉대응한 한인이나, 한인을 부정과 불신의 ‘국’(gook)으로 바라보는 흑인도 백색사회가 주입한 고질적 인종주의를 내면화한 결과라는 인식이다.

LA 사태의 근간으로서의 인종 삼각구도 속에서, 그레이스와 손의 교차적 시선의 설정은 서로를 인종 집단

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28년이 지난 현재 흑인 범주와 한인 범주의 만남을 넘어선 개별적 존재로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손은 오직 ‘국’으로만 간주했던 집단의 일원인 그레이스를 대하면서, 누나의 죽음으로 기억하는 비정한 한인집단의 상투형으로서 두순자의 딸이라는 집단적 적대감을 넘어서서, ‘개체로서의 그레이스’를 만나게 된다. 가령 한백관계를 주도한 인종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아시아인이 흑인과의 대조로서의 자리매김, ‘명예백인’을 추구하는 ‘모범적 소수자’의 신화에 매끈하게 대입되어 있으리라는 사회적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습적 상투형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교육열과 경제수준이 높은 모범적 소수자 신화의 전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모델 마이너리티인가, 영원한 이방인(perpetual foreigner)인가”라는 질문처럼[12] 아시아계 미국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소리내지 않으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관심이 적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정체성으로 존재해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디어 등에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 채 기꺼이 오해받기를 즐기는 “주변화된 소수자”(marginalized minority)[13] 이다. 캐시 홍(Cathy Park Hong)은 이러한 상황이 아시아계 미국인 특유의 “마이너 필링즈”(minor feelings)를 발생시킨다고 본다[14]. 마이너 필링즈에는 사회 속에서 거부되고 억압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우울, 심리적 불안정성과 집단적 “열등의식”이 존재하고 있다[15]. 모범적 소수자 신화의 이면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인종 패러다임 자체를 재고하고,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으로 범주화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본다는 점에서 인종관계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백인과의 관계에서 인종의 위치가 결정되어온 인종 삼각구도 속에서 백색 주도사회가 투사한 집단적 상투형으로 범주화하는 환원주의적 사고 틀을 넘어서서 인습적인 인종 신화에 대한 비판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 2. 한흑 공감소통과 사회적 공존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에서는 LA 인종폭동 때 손이 한인 프랭크 주류상점(Frank's Liquor)에 침입했을 때의 상황을 인종관계 전환의 에피파니로 제시한다. 개인을 인종구도로 범주화하는 인종주의의 악순환을 넘어서서, 개체 간의 관계와 존중에 기반을 둔

휴머니티의 교감을 탐색하고 있다.

두 살 위 누나 에이바가 한인 상점주에게 충격을 맞아 사망한 상황에서 열세 살 손이 바라보는 모든 한인 상점주는 다 같은 ‘국’으로 환원되는 변별성이 없는 집단이다. 억양 있는 영어를 쓰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존재,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낯선 이방인이다. 집단적 상투형으로서의 ‘국’은 빈곤한 흑인 지역에 들어와 흑인소비자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는 존재로, 죄값을 받아도 마땅한 인종적 분노의 대상이다. 손은 프랭크에게 “한국에선 장사 못 해? 여긴 당신 고향이 아니잖아.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멍청한 줄 알지? 감자칩에 사과 몇 개에 10달러를 내곤 당신들이 돈 뜯어 가는 걸 모를 줄 알지.”(274)라고 말한다. ‘왜 온 거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토착시민의 전형적인 인종적 분노로 환원된다.

한인 프랭크의 시각에서도, 손과 같은 흑인 청소년은 폭력을 일삼는 ‘흑인 갱단 집단’으로 상투화되는 존재이다. “내 친구 마이크 오(Mike Oh), 죽었어.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계산대에서 100달러 가져가려고 영터리 같은 놈이 그 친구를 쏘았다고.”(274)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를 증언한다. 마이크 오 사건 때문에 한인 이민사회가 긴장했고, 두순자가 과잉반응으로 총을 쏘았다는 변호가 법정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상황이다. 폭력의 위협이 상존하는 구역에서 상업을 하면서 겪은 절도와 강도 등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불안과 과잉대응을 오가는 결과가 LA 인종폭동의 직접적 도화선이라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누나가 죽었어”(273)라는 손의 말도 “한정자의 무리”(278)로서 한인 상점주에 대한 집단적 응징의 시각을 반영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잘못했지, 미안해”(275) 라는 프랭크의 말에 대한 손의 충격은 한 흑 관계의 전환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손이 한정자가 총을 쏜 에이바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누나 일은 안되었다고 말하는 프랭크에게서 진정성을 느끼며 매우 당혹해한다.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손은 마음 한구석으로 이 남자가 미안해한다는 걸, 자신의 고통을 알고 인정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273)며, 집단을 넘어서 개별화된 개인의 감정이 표현되자, 이 낯선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인습적인 인종구도 속에서 ‘흑인 비행 청소년 집단’으로서 흑인-좁도둑-폭력-위협으로 인종적 상투화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손은 한인에게 당한 안쓰러운 피

해자라는 개인으로 변별하고, 그 개인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개별화된 공감을 보여준 것이다. 집단 대 집단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얼굴로 서로를 인식하는 가운데, 인종적 증오의 대상인 ‘국’도 자신과 인간적인 감정을 공유한다는 느낌에 손은 어색함을 느낀다. 집단으로서의 인종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 자체를 보는 에피파니가 주목된다.

프랭크는 비정한 한정자 꽤거리, 못된 상점주인으로서 인종적 복수를 받아 마땅한 ‘그들 중 하나’이므로, 손은 자신의 약탈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프랭크가 “생계를 위해 애쓸 뿐이었다”(273)라고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매우 당혹해한다. 프랭크가 유난히 늙어 보이고 상점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에서 처절함이 느껴지며 안됐다든 연민과 감정이입이 개입된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인 상점이 망가질 것을 예견하고 떨고 있는 이 한인 상점주가 자신들의 돈을 뜯어가는 비정한 흡혈귀가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으로 보이자, 손은 자신의 약탈 행위에 대한 복합적이고 모호한 감정을 느낀다. 프랭크가 결국 상점을 포기하고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손은 그가 나가는 모습을, 돌아서서 상심한 얼굴로 가게에 한참 작별인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불쌍한 마음이 들 뻔했다”고 한다(276). 전형화된 집단적인 인종적 원한과 분노의 상투형으로서의 의식을 극복하고, 감정을 가진 개인 대 개인의 상황으로서의 인식은 인종적 시각으로 상투화되지 않는 인간적인 공감의 영역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강요하는 집단으로서의 인종적 환원이 인종문제를 가속화하고 관계 개선의 난관으로 작용해온 상황에서, 한흑 간에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될 수 없는 인종주의의 공동 피해자라는 휴머니티 공통의 공감 영역을 열고 있다.

프랭크에게 느꼈던 복합적 감정의 실체가 해석되지 못한 채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손은 28년이 지난 현재, 그레이스를 만나 개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인종 삼각구도 속에서 대조적인 인종적 위치로 자리매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애와 LA에 대한 장소 애착 등 상호 교감의 영역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품의 결말에서 손이 분노에 쌓인 군중들에 맞서 그레이스와 미리엄 자매를 보호하려고 나설 때, 프랭크에게서 느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의 정체가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레이스도 인간적인 공감에서 인종 평등성을 향한 인권운동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한다. 그레이스는 로드니 킹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알폰소 사건을 조망하고, 추모 집회에 참여한다.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끔찍한 짓을 벌이고 흑인들이 죽어가는 건 안타까웠다”(31)면서, 인권과 인종정의를 향한 실천적 공감을 보여준다. 쿠리얼이 충격을 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등 보도자료를 보며, “그레이스는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세상이 온통 부당한데, 외면하는 건 잘못된 일, 이기적인 일이었다...그레이스의 가슴은 쓰라린 부끄러움과 정의로운 열정에 몽클해졌다.”(33) 한흑 간 상호 시선을 매개체로 한 이러한 공감 공간의 확장은 인종주의 극복을 향한 실천적 소통의 활성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은 백색 주도적 인종주의로 인해 가속화된 한흑의 공통적 트라우마 속에서 파괴된 교감의 회복을 통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공동체로서 미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 공존의 역량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V. 결론

한국계 미국 이민사의 트라우마로서 LA 인종폭동은 한인 이민사회의 자화상을 점검하는 소재로서 삼십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한인 이민사의 시각에서 볼 때,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사회 내에서 인종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흡했던 데 대한 자성과, 다인종사회에서의 포괄적인 인종담론을 읽어내는 사회적 독해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한국계 미국 문학사적 측면에서도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식력이 약한 이민 1세대들과, 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힘으로 부상하게 된 새로운 세대 작가들 사이의 세대 간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인종관계에 관한 시각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스텝 차가 흑인의 상황에 공감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LA 인종폭동 25주년이 되는 2017년 <국> (*Gook*)을 발표한 이민 2세대 작가 저스틴 전(Justin Chun)도 “두순자가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고...정의를 실행되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마땅히 그럴 것이다”라며,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15]. 새로운 세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흑인의 목소리에 대한 이러한 경청의 움직임은 인종정의와 평등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공감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LA 인종폭동 직후에 “한흑 연맹”(The Korean/African-American Alliance)[16]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나, 최근 플로이드 사건이 촉발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동참은 공감 소통의 시민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서적 감수성 측면에서도 LA와 같은 대도시의 장소성을 공유하며 한흑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공감구도는 문화지리적 차원에서의 공통적 토대를 통해, 인종 관계 개선을 향한 교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한-백-흑의 메커니즘에 근간을 둔 인종 삼각구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집단적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하는 고질적 인종주의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해체를 제시하고 있다. LA 인종폭동이 개인을 인종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환원주의적 구도의 결과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원성과 다성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존의식을 시도하고 있다. 인종지도를 읽어내는 이러한 사회적 독해력을 근간으로 한 실천적 공감대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상호연계성에 근간을 둔 미래지향적 공존의 커뮤니티에 대한 전망과 기대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References

- [1] Claire Jean Kim,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Politics and Society*, vol. 27.1, pp. 105-138, 1999.
- [2]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New York: HarperCollins, 2019.
- [3] Steph Cha,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Who Are Stuck With These Memories.” Interview by Victoria Namkung. Longreads, 17 longreads.com/2019/10/17/interview-with-steph-cha/
- [4] Julia Jiwon Shin, etc. “Systemic Racism and Racial Inequality: Focusing on recent racial issues in the United Stat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20.4, pp. 41-80, 2020.
- [5] Darrell Steffensmeier, etc. “The Interaction of

- Race, Gender, and Age in Criminal Sentencing: The Punishment Cost of Being Young, Black, and Male” *Criminology*, vol. 36.4, pp. 763-798, 1998.
- [6] Becky Pettit and Bruce Western, “Mass Imprisonment and the Life Course: Race and Class Inequality in U.S. Incarce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9.2, pp. 151-169, 2004.
- [7]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trans. Na Kyung Lee, Seoul: Golden Bough, 2021.
- [8] “President Obama Speaks on the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https://youtu.be/sZZLSUIPTk>
- [9] Ronald Weitzer, “Racial Prejudice among Korean Merchants in African American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4, pp. 587-606, 1997.
- [10] Ronald Weitzer, “Racial Prejudice among Korean Merchants in African American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4, pp. 587-606, 1997.
- [11] Jun Xu and Jennifer C. Lee, “The Marginalized “Model” Minority: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Social Forces*, vol. 91.4, pp. 1363 - 1397, 2013.
- [12] Tiffany Yip, etc. “Rendered invisible: Are Asian Americans a model or a marginalized minority?” *American Psychology*, vol. 76.4, pp. 575-581, 2021.
- [13] Cathy Park Hong,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New Yor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2020.
- [14] Cathy Park Hong,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https://youtu.be/f96pIOPOSsw>
- [15] Soraya Nadia McDonald, “‘Gook’ director Justin Chon talks filmmaking, race and the Rodney King Riots” <https://theundefeated.com/features/gook-director-justin-chon/>
- [16] Jeong Duk Yi, *LA Korean Organizations and multi-ethnic Relations, LA Koreans in Multi-ethnic Relations*, Gyeonggi: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8.

※ 이 논문은 202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  
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